

▶ 달러/원 주간 전망

•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환율..주간 거래 범위 대폭 확대될 위험

서울, 3월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25-1485원으로 국내외 대형 이벤트 결과 따라 환율 거래 범위가 대거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둬야할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지 않은 채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은 고조돼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위험 속 환율은 또 한번의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정국을 맞이해 크게 흔들렸던 원화는 작년 말 1486원선까지 올라 1500원을 위협한 바 있다. 물론 연초에는 약달러를 따라 1420원대로 밀리는 모습도 보였지만, 전주말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어디로 튈 수 있는 1450원대 중반에서 최종거래됐다.

한편, 이번 주는 대외적으로도 큰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통화정책이 예정돼있는데 기준금리 변화는 없을 것으로 폭넓게 예상되지만, 이러한 재료를 소화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 분위기 따라 원화는 얼마든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평가와 경기 전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금리 경로 수정 작업 속 최근 약세 조정을 받아온 글로벌 달러는 단기 향방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행 정책회의 결과 따라 최근 촉발된 엔 강세 지속 여부가 판가름나는 등 회의를 전후해 엔 변동성이 대거 커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인민은행도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한다. 금리 동결에 보다 무게가 실리지만, 이달 초 양회를 통해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적절한 시기에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결과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한편, 영란은행 정책회의도 대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2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핵심 경제지표 발표도 주목된다.

한편, 국내외 증시 흐름을 주도하는 기술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도 있다.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행사로 젠슨 황의 기조연설 등을 통해 반도체 및 AI 관련주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국면에서 들어선 미국 기술주가의 단기 흐름이 결정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대형 이벤트가 집중된 이번 주 환율의 변동성이 얼마나 확대될지, 이 가운데 당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14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 주간 세계 이슈

3월17일 (로이터) - 이번 한 주는 무엇보다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금리 결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시장을 빠른 속도로 뒤흔든 많은 움직임이 정치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격변을 불러오면서 세계 시장과 정책 입안자, 기업, 소비자는 휘청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십 년간 이어온 미국의 외교 정책 기조를 버리면서 동맹국들은 충격을 받았고, 우방과 적을 모두 겨냥한 관세 정책은 무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이 세계를 '3분할'하는 것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독일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유럽에 "자정까지 5분"이 남았다고 말하며 적대적인 러시아와 신뢰할 수 없는 미국에 유럽이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의회는 화요일에 국방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재정 개혁안에 대해 투표한다. 한편,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을 위한 트럼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면 투자처로서 미국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연방준비제도

시장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연준 회의에서는 향후 몇 달 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수요일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은 다음 인하 시점에 대한 지침에 집중할 것이다. 연준 펀드 선물에 따르면 6월이 그 시점이 될 수 있으며 2025년 말까지 거의 세 차례의 인하가 예상된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하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한 덕분에 완화 주장이 조금 더 힘을 얻었다. 그러나 연준은 새로운 수입 관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 영란은행 등 중앙은행 회의 줄줄이 예정

이번 주에는 영란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스웨덴 중앙은행도 정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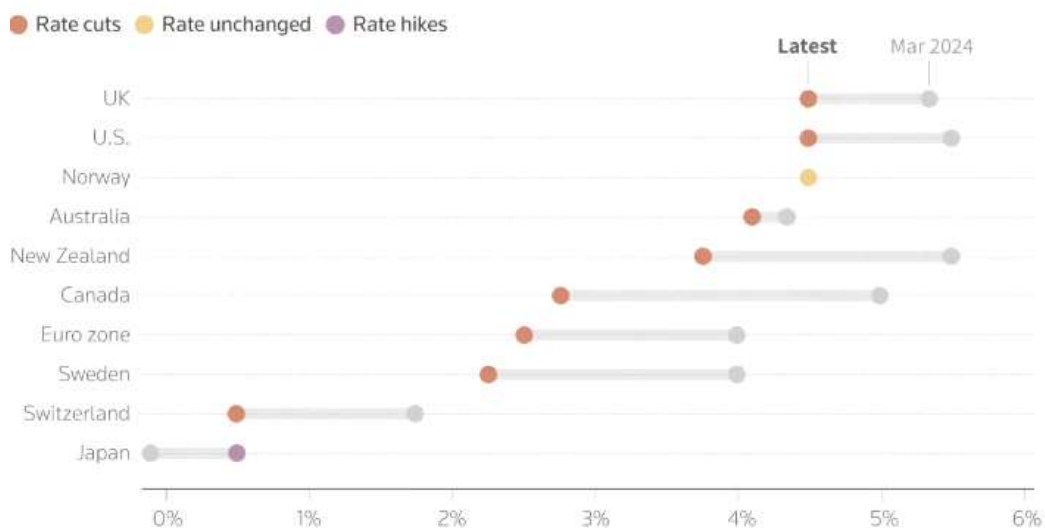
시장은 목요일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며,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뉜 투표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올 후반 추가 완화에 앞서 잠시 숨을 고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둘기파 성향의 스위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G10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A rate cutting spree

Change in policy rates by 10 major developed central banks



Note: Countries are sorted in descending order of current interest rates. Data as of March 13.

Source: LSEG Datastream

Sumanta Sen • March 13, 2025 | REUTERS

⊙ 금리 인상 준비하는 BOJ

한편,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다시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만 이번 주 회의에서는 인상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목요일 의회에서 매파적인 발언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며 임금의 꾸준한 상승이 소비자 지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의 주요 노조들은 올해 봄 협상에서 다시 평균 약 6%의 임금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 노조는 평균 5%를 조금 넘는 인상률에 합의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르면 4월/5월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이

코노미스트들은 7월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그 배경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초장기 국채 수익률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잡을 수 없는 상승세가 있다.

BOJ set to hold rates

The BOJ is leaning towards keeping rates steady in its March 18-19 meeting, even though conditions are falling into place to raise interest rates again.



Note: Shunto is the wage negotiations between labor unions and management in the spring. / Data as of March 14, 2025.

Sources: LSEG Datastream; JTUC-Rengo, "Results of Spring Wage Negotiation Final Responses."

Pasit Kongkunakornkul • March 14, 2025 | REUTERS

㉠ 인플레이션과의 싸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거의 모든 신흥국 중앙은행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최근 몇 년간 연준과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서 긴축을 추진한 브라질은 수요일에 금리를 100bp 더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며, 이로 인해 금리가 8년 만에 최고치인 14.25%까지 오를 수 있다.

목요일 금리를 결정하는 남아공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긴장, 국내 정치 분쟁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에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금리 인하로 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연준 금리 동결 예상에도 인하 힌트 주목..관세 관련 뉴스 영향력 지속

뉴욕, 3월17일 (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흔들리는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를 앞둔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찾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강화하면서 월스트리트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열린다.

연준은 오는 수요일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투자자들은 연말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연준이 움직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찾고 있다.

모닝스타 웰스의 수석 다중 자산 전략가인 도미닉 파팔라도는 "주식시장은 연준이 언제쯤 다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백악관에서 나오는 헤드라인과 새로운 정책의 맹공격이 조만간 멈추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도감을 가져다준 소비자 물가 데이터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인플레이션 속도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2022년 이후 둔화됐다. 여전히 연준의 연간 물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더 돋보일 수도 있다.

파팔라도는 "주식시장이 (연준으로부터)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 지원으로 초점을 다시 옮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은 올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늘렸으며, 연방기금 선물은 현재 금리인 4.25%~4.5%에 비해 올해 중 세번의 25bp 인하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결정 발표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중요하다.

그린우드 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인 월터 토드는 지난 몇 주 동안 "시장은 연준을 다시 프라이싱했다"면서 "만약 파월 의장이 선물 시장의 가격 재조정을 강하게 반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략가들은 경제와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S&P500 2025년 연말 목표치를 6,500에서 6,200으로 낮췄고, 야데니 리서치는 지수의 '최상의 경우' 목표치를 7,000에서 6,400으로 하향 조정했다.

분석가들은 관세 부과가 기업 이익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주에도 관세 소식이 시장의 최전방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3월17일 (월)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부채 점검회의」개최 (10:30)
- ⊙ 한국은행: 2025년 1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12:00)
- ⊙ 기획재정부: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9:00)

3월18일 (화)

- ⊙ 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공동 기후금융 컨퍼런스」 개최 (14:00)
- ⊙ 한국은행: 2025년 제4차(2.25일 개최, 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3월19일 (수)

- ⊙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

3월20일 (목)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 (12:00)
- ⊙ 기획재정부: '25.3월 국고채 모집 발행 계획 (17:00)

3월21일 (금)

- ⊙ 관세청: 3월1일~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06:00)
- ⊙ 한국은행: 총재 인구와 인재 연구원 개원 세미나(축사) 및 MOU 체결 (09: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1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3월17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2월		-5.0%
3월17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2월	3.6%	3.2%
3월17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2월	5.3%	6.2%
3월17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2월	4.0%	3.7%
3월17일	21:30	미국	NY연은 제조업지수	3월	-0.75	5.70
3월17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2월	0.6%	-0.9%
3월17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3월	42	42
3월18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2월	1.450M	1.473M

3월18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2월	1.375M	1.366M
3월18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2월	-0.1%	0.3%
3월18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2월	-0.2%	1.3%
3월18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2월	0.2%	0.5%
3월19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3월		3
3월19일	08:50	일본	기계류 주문 MM	1월	-0.5%	-1.2%
3월19일	08:50	일본	수출 YY	2월		7.3%
3월19일	08:50	일본	수입 YY	2월		16.2%
3월19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확정 치 MM	2월	0.5%	-0.3%
3월19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14 일 주 간		269.3
3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3월		3.10%
3월20일	10:00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3월		3.60%
3월2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월10 일 주 간	225k	220k
3월20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2월	3.95M	4.08M
3월21일	08:30	일본	CPI	2월		4.0%
3월21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SA, EUR	1월		38.400B
3월22일	00: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3월	-13.0	-13.6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17일 (월)

- ⊙ 리춘린 NDRC 부주임 및 중국인민은행·재정부·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 소비 진작 조치 관련 기자회견 (오후 4시)

3월18일 (화)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19일까지)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회의 (19일까지)

3월19일 (수)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 (20일 오전 3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20일 오전 3시30분)

3월20일 (목)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 출석 (오후 5시)
-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9시)
- ⊙ 휴장국가: 일본

3월21일 (금)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바하마 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후 10시5분)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TSMC, 엔비디아·AMD·브로드컴에 인텔 파운드리 운영 합작사 제안

싱가포르/뉴욕/타이베이, 3월12일 (로이터) - 대만 TSMC 2330.TW 가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인 엔비디아 NVDA.O,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 AMD.O, 브로드컴 AVGO.O 에 인텔의 INTC.O 공장들을 운영할 합작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이 전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TSMC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칩을 만드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운영하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이 소식통들 중 한 명과 별도의 소식통에 따르면 퀄컴 QCOM.O 도 TSMC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이번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TSMC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산업 아이콘인 인텔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후 나온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TSMC의 지분 50% 이하 인수 계획의 세부 사항과 잠재적 파트너에 대한 제안은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종 합의가 성사되려면 인텔이나 파운드리 사업부가 완전히 외국 소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텔, TSMC, 엔비디아, AMD, 퀄컴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백악관과 브로드컴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소식통 중 세 명은 트럼프가 미국의 첨단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인텔을 되살리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TSMC가 3월3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향후 몇 년 안에 미국에 5개의 반도체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 전에 TSMC가 잠재적 후원자들에게 합작 투자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세 소식통은 이후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합작 투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TSMC는 한 곳 이상의 반도체 설계 업체를 파트너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회사가 인텔의 일부 인수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4명의 소식통 중 2명은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와 별도로 반도체 설계 하우스를 매각하는 논의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별도의 소식통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기 위한 초기 논의를 종료했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 인텔 이사회 멤버들은 거래를 지지하고 TSMC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일부 경영진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TSMC는 합작 투자의 잠재적 투자자가 인텔의 첨단 제조업 고객이기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로이터는 지난주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인텔의 최첨단 생산 기술인 18A를 사용하여 인텔과 제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MD도 인텔의 18A 제조 공정이 적합한지 평가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